

내년 의대정원 원점 검토... 전남 국립의대 '안갯속'

최상목 “제로베이스서 협의 가능”
정부 입장 변화에 신설 차질 우려
오늘 의협 입장 발표 여부에 촉각
도 “설립 명분 여전...유치에 최선”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정원 원점 검토 및 복귀 전공의에 대한 수련 및 입영 특례 적용을 발표하면서 전남도민의 30년 숙원인 '전남 국립의대 신설'이 또 다시 안갯속에 빠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13일 정부 및 전남도에 따르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의료계가 대화에 참여해 논의해나간다면 2026년 의과대학 정원 확대 규모도 제로

베이스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을 것”이라며 “수급 전망과 함께 각 학교의 현장 교육 여건까지 감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기존 정원 감원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특정 숫자를 염두에 두고 협의할 계획은 없다”며 “지금까지는 2035년 의사인력 수급 균형을 목표로 추진했으나, 이제는 교육 여건 및 각 학교의 사정 등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로 떠오름에 따라 이를 충분히 고려해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같은 정부 입장 표명에도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신임 집행부는 아직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면서 14일 열리는 김택우 신임 의협회장 취임식에 귀추가 주목된다.

취임식 자리에서 정부의 '정원 원점 검토'에 대한 입장 및 향후 대응 방향을 밝힐

가능성이 있어서다.
의대 정원을 둘러싼 정부 입장 변화에도 의료계가 별다른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면서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도는 속만 타들어가고 있다.

전남 국립의대 신설은 민생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이 설립을 약속하며 급물살을 탔으나 목포대학교와 순천대학교의 갈등으로 번지며 주춤했다.

이후 양 대학은 지난해 11월 통합에 전격 합의, 지난해 12월31일 '국립한국제일대학교(가칭)' 이름으로 교육부에 대학 통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양 대학은 오는 3월 복지부와 교육부를 통해 의대 정원을 배정받고, 한국의 학교육평가원의 예비인증심사 통과를 바탕으로 오는 5월 통합의대 이름으로 대학입학전형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

이었다.
그러나 국립의대 신설을 약속한 윤 대통령의 탄핵 정국과 더불어 정부의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소식에 불확실성은 커져만 가고 있다.

전남도는 정국 불확실성과 상관없이 의료 취약지인 전남의 지역의료 인프라 강화 및 공공의료 인력 양성 필요성은 변하지 않은 만큼 전남 국립의대 신설 명분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입장이다.

의명을 요청한 한 지역 의료계 관계자는 “의정협의체 논의에서 ‘지방·공공의료 인력 총원’을 별도 의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적도 있는 만큼 정원 확대 및 축소와 별개로 지역 공공·필수 의료 확충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세워 한정된 정원 일부를 전남에 우선 배정하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이와 관련, 강종철 전남도 인재육성교육국장은 이날 세종시를 찾아 김홍순 교육부 의대교육지원관 직무대리를 만나 전남 통합의대 설립 추진서 제출 경위 및 통합 과정을 설명하고 의대 정원 배정을 건의했다.

강 국장은 “이번 만남은 지난 1일 교육부에 신설했던 의대교육지원관과 상견례 겸 앞으로의 추진 계획 등을 설명한 자리였다”며 “교육부 관계자들도 전남 국립의대 신설에는 공감하고 있으나 의정갈등으로 인해 향후 방안에 대한 답을 주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한 만큼, 전남도 또한 의료계 및 정부를 포함해 국회 등 정치권에도 수시로 찾아가 논의하는 등 전남 국립의대 신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지현 기자 jihyun.oh@jnilbo.com

강 시장, '제주항공 참사 특별법' 제정 국회 요청

권영진·신정훈 의원 등 만나
“진상규명·피해자 지원” 당부

강기정 광주시장은 13일 국회를 방문, 여야 국회의원을 잇따라 만나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 규명과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에 적극 나서 달라”고 요청했다.

광주시에 따르면 강 시장은 이날 오전 국민의힘 권영진 국회 제주항공여객기참사특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원장, 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을 만나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지원 특별법'의 신속한 제정과 내실화 등 국회 차원의 협력을 요청했다.

권 특위위원장은 “특위에서 현장조사와 함께 국토교통부의 보고를 종합해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고, 특별법에 유가족 및 광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신 행안위원장도 감사의 인사와 함께 행안위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특별법을 촉구키로 했다고 전했다.

강 시장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으로 가수(리아)로 활동한 조국혁신당 김재

원 의원도 만나 유가족의 의논해 진상조사 이후 추모음악회를 마련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특별법에는 유가족의 일상회복을 위한 경제·의료 지원, 유가족을 포함한 참사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위한 자조 공간 마련,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지원 등을 담을 계획이다.

또 친권자 사망으로 인한 미성년자 피해자를 위해 성년까지 지원하고, 유가족 등 피해자의 생활 보조에 필요한 비용 지원을 특별법에 담는다.

아울러 유가족 다수가 이용하기 쉬운 광주에 피해자 등의 치유를 위한 공간 조성도 절실하다고 보고, '1229 마음센터'(가칭) 조성의 국비 지원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에 앞서 지난 11일 양부남·안도걸·조인철·정준호·박군택·민형배 광주 지역 국회의원들을 만나 유가족부터 광주시민들까지 심리적·경제적 타격을 입은 모든 피해자들의 일상 회복을 도울 수 있는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이 절실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함께 힘을 모으기로 했다.

노병하 기자



강기정(오른쪽) 광주시장이 13일 서울 국회에서 권영진 국회 제주항공여객기참사특위 위원장을 만나 제주항공 여객기참사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 관련 건의서를 전달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전남도, 감사원 자체감사활동 심사 2개 분야 '최우수'

전남도는 감사원의 2024년 자체감사활동 동 심사에서 '자체감사활동 성과향상'과 '자체감사사항 콘텐츠' 등 2개 분야에서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감사원장 표창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감사원은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

단체, 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자체감사활동을 심사해 개선과 발전을 유도하고 국가 전체 감사역량을 높이고 있다.

이번 심사는 총 677개 기관을 대상으로 △기관 전반의 내부통제 지원(50점) △ 자체감사기구의 구성과 인력 수준(20점)

△자체감사활동 성과(30점) 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심사 결과 전남도는 자체감사활동 성과, 자체감사기획과 수행 능력 등에서 지난해보다 실적이 크게 향상돼 17개 광역 시도 중 성과 향상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또한 감사원 '자체감사사항 콘텐츠'에서 공유재산 특정감사로 17개 광역 시도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

오지현 기자

누구나 쉽게 바르는 황토 벽지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살아 숨쉬는 고어텍스 특허공법 천연황토 코팅제!!

▶ 용도

어린이집 · 유치원 · 한옥 내 · 외부 · 방바닥 · 전원주택 · 경로당 · 아파트 · 펜션 · 찜질방 · 카페 · 휴집
외벽 · 목재 · 양어장 · 물탱크 · 기타 인테리어를 요하는 곳
비가 오면 축축하거나 물이 새어 곰팡이 생기는 모든 곳
기존 황토미장된 곳이나 도배지를 뜯지 않고 위에 시공을 요하는 모든 곳
...비염으로 고생하는 어린이방이나 새집증후군 완벽차단!!

▶ 친환경성

천연황토, 게르마늄, 솔잎, 편백나무, 약쑥, 참숯, 은행잎등 건강에 좋은재료를 업선하여 고분말로 만들어 술향기나는 친환경 웰빙제품입니다.

▶ 색도조절제 화이트(600g) : 원하는 색상 조절가능



저가 황토 제품과 비교 절대 불가!!

▲ 유사품에 주의하세요 ▲

시중에 검증 받지 않은 방수제품들이 난무하여 소비자들을 현혹하여 판매 및 시공하는 피해사례가 있다고 있습니다. 드림코리아는 특허 인증 품질 보증 업체입니다.

전화 문의시 관련 책자를 보내 드립니다.
(제품구입시 시의 지역은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드림코리아
DREAM KOREA

전국 대리점 및 판매점 모집(무담보, 무보증)
문의 : 080-362-7788
www.dreamkorea.biz